

숫자 수량 표현의 영한 번역 문제

곽은주 · 김세정
(세종대 · 용인대)

1. 서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Numerals)의 어휘 범주와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르다. 영어와 한국어에서 수량을 표현하는 기본 수사 체계를 비교해보면, 영어에서는 ‘one, two, three,...’로 하나의 어휘로만 표현되지만, 한국어는 한자어 ‘일, 이, 삼,...’과 고유어 ‘하나, 둘, 셋,...’의 두 가지 어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¹⁾. 또한 수사를 이용하여 어떤 대상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도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 방법이 다르고 영어보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영어는 수사와 함께 단수나 복수 여부에 따라 명사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한국어는 수사와 함께 그와 어울리는

1) 수사는 수량뿐만 아니라 ‘first, second, third,...’,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효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어휘에 한정하여 영한 수량 표현 번역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수량단위 명사²⁾와 주로 결합하여 수량을 표현한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수량 단위 명사가 발달해 있고 수량단위 명사에 따라 수사 표현을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한국어 수사는 고유어와 한자어뿐만 아니라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량단위 명사에 의해 수사가 결정되는 한국어의 수량 표현에서 수사를 숫자로 쓰면 수량단위 명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은 보통 ‘일, 이, 삼,...’과 같이 주로 한자어 수사로 읽히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수량단위의 종류에 따라 고유어 수사로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와 수량단위 명사로 구성된 한국어 수량 표현에서 고유어로 읽어야 할 수사를 숫자로 표기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수량 표현이 되거나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서 숫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 방법을 모색해 본다.

구어와 문어의 코퍼스 자료에 나타난 수량 표현의 선호도를 통해 한국어의 수량단위 명사와 수사의 일반적인 사용 유형과 텍스트 유형별 수량 표현의 사용 유형을 살펴본다. 이 연구 결과를 번역 텍스트에 실제로 적용하여 숫자 수량 표현이 자연스러운 경우와 부자연스러운 번역 실례에 관해 논의한다.

영한 번역에서 숫자를 이용한 수량 표현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의미상 중의성을 나타낼 때이다. 수량단위 명사의 종류에 따라 숫자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모두 읽을 수 있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면 번역텍스트를 접하는 목표 독자에게 의미상 혼돈을 줄 수도 있다.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서 숫자를 썼을 때 의미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량단위 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번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부 연구에서는 수량단위 명사가 수사 뒤에 나오는 수의 단위 표시 외에도 의미를 범주화하는 자질까지 있다고 하여 가름말, 분류사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사와 함께 어울리는 수 단위와의 결합 관계에 한정하여 논의하므로 서정수(1994)를 따라 수량단위 명사를 택한다.

2. 영한 수량 표현의 차이에 따른 번역 문제

‘one, two, three,...’와 같이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영어 수사와 달리 한국어 수사는 ‘일, 이, 삼,...’과 같은 한자어와 ‘하나, 둘, 셋,...’과 같은 고유어의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수사를 이용하여 어떤 대상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영어는 수사 뒤에 수량의 대상이 오는 ‘수사+명사’의 구성이다. 반면, 한국어는 수사와 함께 수량단위 명사가 오는 ‘명사+수사+수량단위 명사’의 구조를 주로 이용한다.

(1) <영어>

수사 + 명사 : twenty students

<한국어>³⁾

명사 + 고유어 수사 + 수량단위 명사 : 학생 이십 명

명사 + 한자어 수사 + 수량단위 명사 : 학생 스무 명

(1)에서 보듯이 영어와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구조상 차이가 있다. ‘twenty students’와 같이 단위 명사 없이 수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별도의 단위 명사 ‘명’을 써서 수량을 표현하였다. 또한 수사도 한자어 ‘이십’과 고유어 ‘스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이원적 수사 체계와 함께 한국어에서는 수량 명사 표현도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 a. 수사+명사 : 다섯 청년
- b. 명사+수사 : 청년 다섯
- c. 명사+수사+수량단위 명사: 청년 다섯 명
- d. 수사+수량단위 명사+의+명사 : 다섯 명의 청년 (이익섭 2005: 80)

a와 b처럼 수량 단위 없이 수량을 표현 하는 경우는 수사의 쓰임이 한정적이고, d와 같이 수량단위 명사가 쓰였지만 ‘의’가 쓰인 유형 또한 분포가 제한적이고 문어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c의 ‘명사+수사+수량단위 명사’의 유형에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 (2) a. 한자어-한자어: 이십 개)
 b. 고유어-고유어: 스무 마리
 c. 한자어-고유어: 이십 벌/*이십 해
 d. 고유어-한자어: 스무 권/*스무 년

수사와 수량단위의 구성에서 (2a)의 ‘이십 개’와 (2b)의 ‘스무 마리’와 같이 한자어 수사는 한자어 수량단위와 고유어 수사는 고유어 수량단위와 결합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2c)와 (2d)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계열의 수사와 수량단위가 결합했을 때 ‘이십 벌’의 ‘벌’과 ‘스무 권’의 ‘권’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고유어와 한자어의 쌍이 없는 단위 명사의 경우 수량단위 유형에 어울리는 수사를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십 벌’은 ‘스무 벌’, ‘스무 권’은 ‘이십 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년’과 같이 쌍을 이루는 단위 명사가 포함된 수량 표현은 수량단위와 수사를 같은 계열로 쓰지 않으면 ‘이십 해’와 ‘스무 년’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수사 표현이 된다.

한국어의 수사는 고유어 수사와 한국어 수사가 병용되는 데서 오는 제약이 많은데, 특히 동일한 의미의 수량단위가 고유어와 한자어로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수사 선택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이익섭 2005: 82). 그러므로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쌍을 이루는 단위명사에는 어느 것이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해 두 개의 단위명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지의 문제이다.

영어의 수량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량단위에 따른 수사의 유형 선택 문제이다. 수량단위 유형에 따라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로 표기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수사를 표기한 경우 번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3) a. 20벌 = 이십 벌>스무 벌
 b. 20권 = 이십 권>스무 권
 c. 20년 = 이십 년

4) ‘이십 개’는 ‘한자어-한자어’의 같은 계열의 결합으로 자연스럽게, 수가 작을 때 ‘오 개’는 어색하고 ‘고유어-한자어’의 결합인 ‘다섯 개’가 자연스럽다.

10 미만의 수는 대체로 고유어 수사가 우세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채완 1984: 24).

d. ??20해 = 스무 해

숫자를 이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 ‘20벌’과 ‘20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의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 쌍을 이용하여 표현이 가능한 ‘년/해’의 경우, ‘20년’은 자연스럽지만 ‘20해’는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20해’가 어색한 이유는 숫자는 일차적으로 한자어로 읽히기 때문이다(서정수 1994: 470). 한자어 수사와 함께 쓰이는 한자어 수량단위 ‘년’을 쓴 ‘20년’은 ‘이십 년’이라고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고유어 수량단위 ‘해’는 ‘20해’를 ‘이십 해’라고 읽을 가능성이 있다. 숫자를 한자어로 먼저 읽는 경향은 같은 의미를 가진 고유어와 한자어 수량단위의 쌍이 없는 수량 표현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3a)의 ‘20벌’은 ‘이십/스무 벌’, (3b)의 ‘20권’은 ‘이십/스무 권’이라고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를 모두 이용하여 읽어도 어색하지 않지만, ‘20벌’은 ‘스무 벌’보다 ‘이십 벌’로, ‘20권’은 ‘스무 권’보다 ‘이십 권’으로 읽기 쉽다. 영어에서 숫자를 쓴 ‘20 years’를 ‘twenty years’라고 한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과 달리 한국어 수사는 수량단위 명사의 유형의 선택에 따라 수사가 결정되는 한국어 수량 표현에서 수사를 숫자로 표기하면 번역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 의미상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영어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기수인 경우 ‘5’로 쓰이고, 서수인 경우 ‘5th’와 같이 구분되어 쓰이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기수의 의미를 가지는 ‘다섯 편’과 서수의 의미인 ‘오 편’이 아라비아 숫자로 수사가 표현되는 경우 ‘5편’으로 동일하게 쓰이게 되어 의미상의 중의성을 가지게 된다.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면서 수사 표현에 대한 중의성이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맥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섯 편’과 ‘오 편’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번역시 어떤 경우에 수사 표현의 중의성의 문제가 텍스트 이해에 장애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수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를 읽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수량단위 명사에 따라 숫자를 고유어와 한자어 두 가지로 모두 읽거나 둘 중의 한 가지로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영한 수량 표현 번역시 한국어에서 어떤 수량단위 명사가

숫자와 쓰였느냐에 따라 수량 표현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서 숫자 수량표현이 부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수량 표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번역에 나타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3. 격식성을 고려한 영한 수량 표현 번역

한국어 수량 표현에서 수사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읽거나 표기하는 것은 수량단위 명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어의 한 가지 수량 표현이 한국어에서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단위가 짝을 이루어서 표현될 때 숫자 표기의 제약으로 인한 번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숫자 표기로 인한 수량 표현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자.

- (4) [ST] “One day Homer Clare -- he passed on seven months and twelve days ago today, after a five-hour operation out in Oregon - he said to me.” (*In cold blood* 2002: 68)

[TT] “우리집 양반. 호머 클레어 말이에요. 오늘로부터 7달 20일 전에 죽었지, 오리건에서 5시간이나 수술을 받다가. 암튼 우리 집 양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 콜드 블러드』 2006: 113)

원문의 ‘seven months’를 번역에서 ‘7달’이라고 표현하였는데, ‘7달’은 어색한 수량 표현이다. 함께 쓰인 ‘20일’과 비교해 보면 ‘7달’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20일’은 ‘이십일’로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7달’은 ‘칠달’이라고 한자어로 읽었을 때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달’은 개월의 수를 가리키는 수량 단위로 고유어 수사와 결합해야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 ‘7’은 한자어 ‘칠’로 우선 읽히기 때문에 ‘칠 달’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7달’은 ‘칠 달’로 잘못 읽었다가 다시 ‘일곱 달’로 읽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고유어 수사를 대신해서 숫자를 쓴 수량 표현은 텍스트의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위(4)의 원문에 쓰인 ‘seven months’는 한국어에서 ‘달’과 ‘개월’의 두 가지

수량단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 ‘달’은 고유어 수사과 함께 ‘일곱 달’로, ‘개월’은 한자어 수사를 써서 ‘칠 개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달’과 ‘개월’ 중 어느 수량 단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유형이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의미의 두 가지 수량단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공적인 상황에서 쓰인다면 고유어는 일상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 고유어 수량 표현 ‘일곱 달’보다 한자어 수량 표현 ‘칠 개월’이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전달한다.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서 한국어의 격식의 정도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번역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수량 표현 사용에 대한 규범을 살펴보고 적합한 번역 방법을 모색한다.

3.1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수량 표현의 분포

번역자는 영한 수량 표현 번역시 상황에 따라 한자어와 고유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번역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즉 언어사용역(register)에 따라 적절한 문법 구조나 어휘를 선택할 수 있다. 언어사용역은 담화의 장(field), 형식(tenor), 방식(mode)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의 변이에 따라 문법이나 어휘 사용상의 차이를 나타낸다(Hatim & Mason 1990). 언어 사용자는 발화 내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며, 발화 참여자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고려하여 문법 구조와 어휘를 선택하고 언어적 관습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용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어 수량 표현의 사용상의 차이는 언어사용역의 세 가지 요소 중 담화 방식에 따른 어휘의 사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담화 방식에서 전달 매체는 기본적으로 구어와 문어로 구분되며, 문어와 구어의 차이는 격식의 정도에서 알 수 있다. 구어와 문어의 어휘적 측면에서의 격식의 정도 차이는 수사 표현에도 적용되어 구어에서는 고유어 수사를 선호하는 반면 문어에서는 한자어 수사를 선호한다(노대규 1996: 48). 한국어의 수사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져 있고, 수량단위 명사에 의해 수사가 결정되므로 한자어와 고유어로 짝을 이루는 수량

표현을 비교할 때 담화 방식의 격식성에 따른 수량 표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의 수량 표현의 쓰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한자어와 고유어로 짝을 이루는 수량단위 명사를 선정하고 난 후, 구어와 문어에 나타난 수량단위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그리고 각 수량단위 명사와 결합하는 수사의 유형을 살펴본다. 나아가 텍스트 유형에 따른 수량 표현의 분포를 살펴보고 실제 번역 텍스트에 적용하여 번역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한자어와 고유어 단위명사를 통해 격식의 정도를 비교적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량단위로 나이를 표현하는 ‘세’와 ‘살’을 선정하였다. 우리말에서 ‘세’와 ‘살’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짝을 이루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수량 단위 명사이다. 구어와 문어의 분석 자료로는 국립국어연구원의 <21세기 세종계획> 코퍼스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어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대화를 전사해 놓은 자료 열 건을 분석했으며, 문어는 인문, 자연 분야 책 한 권씩과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⁵⁾. 먼저 구어와 문어 코퍼스 자료에서 ‘세’와 ‘살’ 둘 중 어떤 수량단위 명사를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각 수량단위 명사가 어떤 수사와 결합하는지 각각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5)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 코퍼스(국립국어 연구원 2007)에서 선정한 구어와 문어의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어 - 가족과 사랑/대학생4일 잡담/도서관에서/버스에서 친구들과/수강과목/식사/식사잡담/식사중 회사원3인/주점대화 대학생3인/미팅

문어 - a. 김훈기 (2004)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궁리출판.

b. 광기상 (1991) 『심리학개론』, 서울: 재동문화사.

c. 신문- 조선일보(2002) 사회면, 동아일보(2002) 경제면, 중앙일보(2002) 종합/생활면

구어의 일상 대화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문어에서는 주로 객관적인 서술을 위주로 하는 인문, 자연 분야의 책을 선정하였고 신문에서도 인터뷰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로 기사화하는 문화면과 사설과 같은 분야는 제외하였다.

(표1) 문어/구어에 나타난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 표현 빈도수 비교

수량단위	문어						구어					
	세 (80.5%)			살 (19.5%)			세(3%)			살(97%)		
결합수사	한자어	고유어	숫자	한자어	고유어	숫자	한자어	고유어	숫자	한자어	고유어	숫자
빈도수			53		11	4	1					29

문어에서는 ‘세’를 쓴 경우가 ‘80.5%’이고, 구어에서는 ‘살’을 쓴 경우가 ‘97%’로 우세하게 나타나 문어에서는 한자어를, 구어에서는 고유어 수량단위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합 수사 유형의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문어에서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는 ‘세’는 모두 숫자와만 결합하여 ‘14세’, ‘74세’와 같이 쓰였다. 반면 구어에서 선호하는 ‘살’은 ‘두 살’, ‘스물일곱 살’과 같이 모두 고유어 수사와만 결합하였으며, ‘세’와 결합한 수사도 한자어 그대로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표1]의 결과는 격식성에 따른 문어와 구어에서의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의 선호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자어 수량단위 ‘세’와 결합하는 한자어 수사는 개론서와 신문과 같은 공식 문서에 많이 쓰이고 고유어 수량 단위 ‘살’과 결합하는 고유어 수사는 일상에서 격식 없이 쓰이므로 격식성의 정도를 따져 본다면 ‘살’보다 한자어 ‘세’가 훨씬 높다. 수량단위 명사에 의해 결정되는 수사의 쓰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어에서의 숫자 사용이다. 문어에서 한자어 수량단위 ‘세’와 함께 수사가 모두 숫자로 쓰였다. 문어에서 숫자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한자어 수사를 숫자로 대신해서 쓰기 쉽고, 문자로 전달되는 문어의 명료하고 간단한 정보 전달의 용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어와 문어의 격식성의 정도를 따진다면 문어가 훨씬 격식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어와 문어에 따라 ‘세’와 ‘살’의 선택은 크게 달라지며 그에 따라 수사의 선택도 달라진다. [표1]의 문어와 구어의 전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수량 표현의 선호도 결과는 일상 대화에서 나이를 말할 때는 고유어 수사를 쓰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자어를 쓴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한다(서정수 1994: 473). 같은 나이를 표현하더라도 ‘십사 세’는 격식 있고 공적인 느낌을 전달한다면, 고유어 ‘열네 살’은 개인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전달한다.

한국어의 격식성에 따른 수량 표현의 차이를 영한 수량 표현 번역에 적용해보면, 텍스트 유형 자체의 격식성과 맥락 및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먼저 문어텍스트를 번역의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텍스트 유형을 선정하고, 격식의 정도에 따라 수량 표현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고 실제 번역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텍스트 유형은 라이스(Reiss)에 따르면 정보적(Informative)텍스트, 표현적(expressive)텍스트, 호소적(operative)텍스트로 구분된다(Monday 2001: 74). 정보적 텍스트는 신문, 개론서와 같이 객관적인 개념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 중심의 텍스트이고, 표현적 텍스트는 저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작품이 대표적이다. 호소적 텍스트는 독자를 설득하여 저자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 텍스트로 연설문이나 광고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각 텍스트 유형별 번역시 정보적 텍스트는 원문에 나타난 지시적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표현적 텍스트는 작가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어 원문의 예술성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호소적 텍스트는 목표 독자에게 원문과 동일한 반응을 불러오기 위해서 번안(adaptation)의 방법을 주로 쓴다. 따라서 텍스트 유형 중에서 격식의 정도에 따른 번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텍스트는 원문과 번역문의 형태와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정보적 텍스트와 표현적 텍스트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격식성에 따른 텍스트 유형별 수량 표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적 텍스트로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을 선택했고, 표현적 텍스트로는 주관적이고 작가 개인의 성향이 포함되어 있는 현대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택했다⁶⁾. 신문은 [표1]의 문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사들을 분석하였고, 소설은 한 작가의 문체로 편중되지 않게 단편 소설 13편을 선정하였다⁷⁾.

6) 한국어의 텍스트 유형별 어휘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신문 기사나 학술 서적처럼 격식이 있는 텍스트에서는 한자어를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은 고유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국어 어휘의 어종별 사용 실태에 따라 신문과 문학작품(소설, 드라마대본, 시, 시조)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임지룡 2002).

신문(20,587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28.3%: 58.7%: 2.7%: 10.3%

문학(23,930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79.15%: 15.00% :0.85%: 5.00%

7)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신문과 소설에 나타난 수량단위 명사 ‘세’와 ‘살’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각 수량단위와 함께 쓰인 수사 유형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표2) 신문/소설에 나타난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 표현 빈도수

텍스트 유형	신문						소설					
	세 (71.1%)			살(28.9%)			세(13.8%)			살(86.2%)		
단위 명사	한자어	고유어	숫자	한자어	고유어	숫자	한자어	고유어	숫자	한자어	고유어	숫자
결합 수사												
빈도수			32		9	4	4			4	21	

신문과 소설에 나타난 수량단위 명사 ‘세’와 ‘살’을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한자어 ‘세’가 신문에서 ‘71.1%’로 높은 빈도수를, 고유어 ‘살’은 소설에서 ‘86.2%’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리고 결합 수사의 유형으로는 신문의 경우, 한자어 ‘세’와 함께 쓰인 수사는 ‘20세’와 같이 모두 숫자를 썼다. 소설에서는 ‘스무살’과 같이 대부분 고유어 수사를 썼으며, 숫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소설에서 ‘살’과 함께 한자어 수사가 쓰인 경우는 ‘백 살’과 같이 고유어 수사를 쓰지 않는 백 이상의 수량을 표현할 때뿐이지만, 신문은 고유어 수량 단위 ‘살’과 함께 ‘15살’처럼 숫자를 쓰기도 하였다. 신문에서 고유어 수사도 숫자로 표기하는 경향은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하려는 정보적 텍스트의 특성을 나타낸다.

신문과 소설의 텍스트 유형별 수량 표현의 차이의 결과는 [표1]의 문어와 구어의 격식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와 유사하다. 신문은 주로 한자어 수량 단위를 선택하고 한자어 수사를 숫자로 표기하여 문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소설은 고유어 수량 단위를 선호하고 고유어 수사 그대로 표기하는 구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정보적 텍스트 신문이 표현적 텍스트인 소설에 비해 격식성

신문기사 - 조선일보(2000) 사회면, 동아일보(2002) 경제면, 중앙일보(2002) 종합/생활면
 단편소설 13편 - 사랑을 믿다/ 목신의 어느 오후/ 그 여름의 수사/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 어찌면/ 내가 데려가 줄게/ 정류장/ 낮잠/ 내가 살았던 집/ 자미원에는 어떻게 가는가/ 춘희/ 사심/ 자폐증

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2 텍스트 유형에 따른 수량 표현의 번역

한국어의 신문과 소설의 텍스트 유형에 따른 수량단위 명사의 선택과 그에 따른 수사의 선호도는 두 텍스트의 격식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번역자는 텍스트 유형별 격식의 정도에 따른 수량 표현의 규범을 고려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5) 현재 3세 이하 소아환자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다. (조선일보 2000. 09. 25.)

(5)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예문으로 나이를 ‘3세’와 ‘65세’라고 숫자와 한자어 수량단위 ‘세’와 함께 표기하였다. 한자어 수량단위와 함께 숫자를 이용하여 신문 기사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반면 소설에 쓰인 수량 표현에는 고유어가 사용된다.

(6) 땀줄이 끊어진 예순두 살 짜리 태아가 된 기분이었다. (권여선 외 2001: 255)

위 예문에 쓰인 나이 표현 ‘예순두 살’은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이 수량 표현은 (5)의 신문 기사에 쓰인 ‘65세’와 비슷한 나이를 말하고 있지만, 고유어 수량 표현을 써서 신문의 한자어 수량 단위를 이용한 나이 표현과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위 (5)와 (6)의 한국어의 신문과 소설에서 나이를 나타내는 수량 표현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신문은 ‘65세’와 같이 한자어 수량 단위와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소설은 ‘예순 두 살’과 같이 고유어 수량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신문과 소설의 격식의 정도를 고려하여 나이를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량 표현 방식이 번역텍스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자연스러운 번역문을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영한 번역 두 예문에서 정보적 텍스트에 쓰인 수량 표현을 비교할 수

있다. 예문은 동일한 사이트에서 발췌한 뉴스 기사로 독자에게 격식 있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문기사와 기본 형식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예문으로 채택하였다.

- (7) a. [ST] Officials said Thursday they were looking into reports that some 34 children aged 2 to 7 were buried in sand up to their chins --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 in the belief that doing so during an eclipse would cure the children of their disabilities.

[TT] 당국은 23일(현지시간) 2살에서 7살 장애아 34명이 부모의 동의로 모래에 머리만 내놓고 묻혔다고 전했다. 인도에는 개기일식 동안 이런 의식을 하면 장애아의 아픈 부위가 치유될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 (Joins CNN 한글뉴스 2009. 07. 24)⁸⁾

- b. [ST] For example, the state now runs a project called "Sweet Home," where disabled people aged between 18 and 42 make envelopes.

[TT]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현재 만 18세에서 42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위트 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Joins CNN 한글뉴스 2009. 03. 03)

(7a)와 (7b)의 원문에서 'aged 2 to 7'와 'aged between 18 and 42'와 같이 숫자를 이용하여 나이를 표현하였으며, 번역문에서도 모두 숫자를 사용하였지만 각각 '살'과 '세'라는 다른 수량단위 명사를 이용하여 나이를 표현하였다. 뉴스 텍스트의 공식적인 보도성을 고려한다면 고유어 수사과 결합하는 '살'보다는 한자어 수사과 결합하는 '세'를 이용한 (7b)의 '18세에서 42세'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

고유어 수사과 결합하는 '살'과 한자어로 읽기 쉬운 숫자를 결합한 것은 어느 텍스트에서나 어색하게 여겨진다. 신문에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수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사를 숫자로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고유어 수사과 결합하는 수량단위와 숫자를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숫자를 선호하는 신문이나 뉴스와 같은 정보적 텍스트에서는 한자어 수량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8) CNN 한글 뉴스 사이트 <http://cnn.joins.com/>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의 선호도가 높은 소설에서의 숫자 수량 표현은 더 어색할 수 있다.

(8) [ST] “It’s very simple. As you grow, you learn more. if you stayed at twenty-two, you’d always be as ignorant as you were at twenty-two. Aging is not just decay, you know....” (*Tuesdays with Morrie* 1997: 118)

[TT] “아주 간단해.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우지. 22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22살만큼 무지할거야.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쇠락만은 아니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1998: 155)

위 예문에서 원문의 ‘twenty-two’를 번역에서는 ‘22살’이라고 숫자를 이용하여 나이를 표현하였다. 수량 단위 ‘살’은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수량단위 명사로 일반적으로 소설 텍스트에 어울리지만, 숫자가 함께 쓰여서 어색한 나이 표현이 되었다. ‘22살’은 ‘이십이 살’과 같이 한자어 수사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예와 같은 소설 대화는 구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22살’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숫자 읽기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독자의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22살’이 아닌 ‘스물두 살’이라고 쓰는 것이 소설 텍스트에 더 적절하다. 또는 수량단위 명사 ‘살’을 생략하고 ‘스물 둘’과 같이 고유어 수사로만 쓰는 것도 괜찮은 번역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격식성은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 소설에서도 문어체의 서술형 지문이 쓰일 수도 있고 소설 내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 관계를 고려하여 격식을 높여야 할 때도 있다.

(9) [ST] At seventy-eight, he was giving as an adult and taking as a child. (*Tuesdays with Morrie* 1997: 116)

[TT] 78살에,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나눠주고 아기로서 받고 있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1998: 155)

예문(9)는 소설의 한 부분으로 화자는 자신의 선생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나이를 표현하는데 고유어 수량단위와 숫자를 써서 ‘78살’이라고 한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수량 표현이고 격식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일흔 여덟에’나 ‘일흔 여덟 살의 나이에’ 처럼 고유어 수사를 쓰거나, ‘살’보다 격식 있는 한자어 수량단위 ‘세’를 써서 ‘78세’나 ‘칠십팔 세’라고 번역하면 문맥상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맥락 내에서의 격식도 수량 표현을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어의 수량 표현을 번역할 때 텍스트의 격식성뿐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의 격식성을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수량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텍스트 유형이나 텍스트 맥락의 격식의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코퍼스 자료를 통해 텍스트 유형별 격식성에 따라 신문은 한자어 수량단위 명사를 선호하는 반면 소설은 고유어 수량단위를 선호하며, 그에 따라 수사 유형 또한 구분된다. 한자어 수량단위와 결합할 때 자연스러운 숫자는 정보적 텍스트의 번역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유어를 선호하는 소설 텍스트 번역에서 고유어 수량단위와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번역이다. 소설 텍스트에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와 숫자가 쓰여서 한자어로 읽기 쉬운 숫자를 고유어로 읽어야 하는 것은 번거롭고 가독성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격식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량 표현의 번역은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텍스트 맥락 내에서도 부자연스럽게 여겨지므로 번역자는 텍스트 유형 자체의 격식성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의 맥락의 격식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단위 명사를 선택하고 그에 어울리는 수사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4. 숫자 수량 표현 번역의 중의성

한국어에서 숫자를 이용한 수량 표현은 신문과 뉴스 기사와 같은 정보적 텍스트에서 주로 선호한다⁹⁾. 정보적 텍스트 번역시 숫자 수량 표현을 쓰는 것이 독자에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숫자 수량 표현은 바로 이해되지 않게 쓰여 있을 때도 있다. 영한 번역에서 숫자 수량 표현의 의미상의 문제는 수량단위 명사로 인해 발생한다.

9) [표2]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숫자 수량 표현의 빈도수 참고.

한국어 수량 표현에서 수사를 한자어로 쓸지 고유어로 쓸지는 수량단위 명사에 의해 결정되며, 수량단위 명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수사를 모두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량단위 ‘명’은 ‘이십 명’이나 ‘스무 명’과 같이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를 모두 쓸 수 있고, 동일한 수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0명’이라고 수사를 숫자로 표기하여도 상황에 따라 ‘이십 명’ 혹은 ‘스무 명’이라고 읽는 방식만 달리 할 뿐 의미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수량단위 명사에 따라 수사 범주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 (10) a. 5 *Harry Potter* films = 해리포터 5편 = 해리포터 다섯 편
 b. the 5th *Harry Potter* film = 해리포터 5편 = 해리포터 오 편

영어의 ‘5 *Harry Potter* films’와 ‘the 5th *Harry Potter* film’은 ‘films’와 ‘film’과 같이 단수와 복수의 구분에 의해 ‘5’가 서수인지 기수인지 구분이 명확하지만, 한국어에서 ‘편’과 같이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수량단위 명사와 숫자를 써서 수량 표현을 번역하면 서수와 기수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10a)의 ‘5 *Harry Potter* films’와 (10b)의 ‘the 5th *Harry Potter* film’ 둘 다 한국어에서 ‘해리포터 5편’이라고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중 다섯 개의 영화 편수를 말하는 (10a)의 ‘five *Harry Potter* films’를 ‘해리포터 5편’이라고 쓴다면 ‘다섯 편’이라는 기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들다. ‘해리포터 5편’은 ‘해리포터 오편’이라고 숫자를 우선적으로 한자어로 읽고 서수의 의미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수량단위 명사가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 중 어느 것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면, 숫자수량 표현은 번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와 ‘편’을 함께 사용하여 발생하는 의미적 중의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번역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1) a. [ST] The fifth film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was released by Warner Bros on 11 July 2007.
 ([http://en.wikipedia.org/wiki/Harry_Potter_\(film_series\)](http://en.wikipedia.org/wiki/Harry_Potter_(film_series)))
 [TT] 워너 브라더스사는 5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2007년 7월 11일에 개봉하였다. (필자번역)

b. [ST] Production of the two Deathly Hallows films is currently underway.

([http://en.wikipedia.org/wiki/Harry_Potter_\(film_series\)](http://en.wikipedia.org/wiki/Harry_Potter_(film_series)))

[TT]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편은 현재 제작 중이다. (필자번역)

위 예문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영화 제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11a)의 서수 ‘the fifth film’은 ‘5편’으로, (11b)의 기수 ‘two films’도 ‘2편’이라고 모두 ‘편’과 함께 숫자를 결합하여 번역해 보았다. (11a)의 ‘the fifth film’의 ‘5편’은 한자어 수사 ‘오편’으로 읽혀서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이 해리포터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영화라는 순서의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1b)의 원문에 쓰인 ‘two films’의 기수의 의미를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편’이라고 숫자 수량 표현을 쓰면 (11a)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2편’이 ‘이편’으로 읽혀져서 영화의 첫 번째 편 이후의 두 번째 편이라는 서수의 의미로 해석되기 쉽다.

한국어의 정보적 텍스트에서 숫자를 이용한 수량 표현이 일반적이지만, (11b)의 ‘2편’은 ‘이편’이라는 서수의 의미로 일차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원문의 ‘two films’의 기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두 편’이라고 쓰는 것이 목표 독자가 쉽게 원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이다. 예문(11)과 같이 어떤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번역의 목적이 있는 정보적 텍스트의 번역은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되 독자가 내용과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이 적합하다(뉴마크 1988: 47). 의사소통적 번역은 목표 언어의 규범(norm)을 중요시하는 목표 독자 중심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번역 방법으로 원문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국어의 정보적 텍스트에서는 숫자 표현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의미적 중의성을 피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한 번역 방법일 때도 있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편’에서 ‘2편’이 ‘두 편’보다 ‘이 편’과 같이 한자어로 읽혀져서 의미상 중의성을 갖게 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2편’이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라는 구체적인 작품명이 함께 쓰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영화 2편’과 같이 ‘2편’이 일반 명사와 함께 쓰인다면 ‘영화 두 편’이라고 숫자가 고유어로 읽혀서 총 영화 편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고유 명사와 함께 ‘숫자+

편'이 쓰이면 숫자를 한자어로 읽어서 시리즈 중의 몇 번째라는 서수의 의미로 파악하기 쉽고, 일반 명사와 '숫자+편'이 결합하면 숫자가 고유어로 읽혀서 기수의 의미로 파악된다. 그래서 '숫자+편'이 고유명사와 함께 쓰이면 서수의 의미로 먼저 이해되어 영한 번역에서의 중의성 문제가 발생한다.

숫자 수량 표현을 고유 명사와 함께 썼을 때 '편'과 같이 번역에서 중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수량단위 명사의 예로 '권'을 들 수 있다.

- (12) a. [ST] Since the release of the first novel, *Twilight*, in 2005, the books have gained immense popularity and commercial success around the world. The series is most popular among young adults; the four books have won multiple awards, most notably the 2008 British Book Award for "Children's Book of the Year" for *Breaking Dawn*.

([http://en.wikipedia.org/wiki/Twilight_\(series\)#Twilight](http://en.wikipedia.org/wiki/Twilight_(series)#Twilight))

[TT] 2005년 트와일라잇 1권이 출간된 이후로 모든 책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와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4권의 책은 다양한 상을 받았으며, 브레이킹 던은 2008 브리티쉬 북 어워드의 '올해의 어린이 도서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필자 번역)

- b. [ST] The four *Twilight* books have consecutively set records as the biggest selling novels of 2008 on the USA Today Best-Selling Books list.

([http://en.wikipedia.org/wiki/Twilight_\(series\)#Twilight](http://en.wikipedia.org/wiki/Twilight_(series)#Twilight))

[TT] 트와일라잇 4권은 2008년 USA 투데이가 선정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연속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필자 번역)

위 예문 (12a)와 (12b)의 원문은 트와일라잇 책 시리즈에 관해 설명하는 정보적 텍스트에서 발췌하였고 수사 표현은 모두 숫자로 번역하였다. (12a)의 서수 표현이 쓰인 'the first novel, *Twilight*'을 '트와일라잇 1권'이라고 번역하였고, 기수 표현이 쓰인 'the four books'도 '4권의 책'이라고 숫자를 이용하여 번역하였다. 영어의 서수와 기수를 모두 '1권', '4권'과 같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함께 쓰인 명사의 종류로 인해 숫자가 다르게 읽힌다. '트와일라잇 1권'은 '트와일라잇'이라는 책의 제목과 함께 쓰여 '트와일라잇 일 권'이라고 한자어 수사

로 읽혀서 시리즈 중 첫 번째 권이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4권의 책’은 ‘책’이라는 일반 명사와 함께 쓰여서 ‘네 권의 책’이라는 총 권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b)의 ‘트와일라잇 4권’은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원문 ‘the four *Twilight* books’는 트와일라잇 책 시리즈 네 권의 권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유 명사와 함께 숫자 수량 표현이 쓰인 ‘트와일라잇 4권’은 ‘트와일라잇 사 권’이라고 읽혀서 트와일라잇 책 시리즈 중의 네 번째 책이라는 서수의 의미로 해석된다. 원문 ‘the four *Twilight* books’의 기수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트와일라잇 네 권’이라고 고유어 수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적 텍스트의 숫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숫자를 그대로 쓰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트와일라잇 전4권’이나 ‘트와일라잇 시리즈 4권’과 같이 구체적인 어휘를 첨가하여 번역하는 것도 중의성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전’이나 ‘시리즈’와 같이 전체 권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숫자 수량 표현 앞에 첨가하여 번역하면 서수의 의미로 숫자가 해석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보적 텍스트의 명확한 메시지를 목표독자에게 전달하는 적절한 번역 방법이 될 수 있다.

‘편’과 ‘권’이 숫자와 함께 어떤 유형의 명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번역에서 중의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숫자 수량 표현 자체로 중의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13) a. Lower and repeat 10 times.

상체를 내리고 이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b. Repeat the exercise cycle no more than every two hours up to eight times a day.

2시간마다 하루에 최고 8번까지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반복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75집』 2005: 70, 72)

위 두 문장은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한 텍스트에서 발췌한 예로 원문의 동일한 표현을 한국어에서는 다른 수량단위 명사를 써서 의미상 혼란을 주고 있다. (13a)의 원문 ‘10 times’와 (13b)의 ‘eight times’는 ‘times’를 이용한 횟수 표현이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회’와 ‘번’이라는 각각 다른 수량단위 명사

를 이용하여 ‘10회’와 ‘8번’이라고 번역하였다. (13a)의 번역에서 ‘10회’는 ‘십 회’라고 수사가 한자어로만 읽히지만, (13b)의 ‘8번’은 ‘여덟 번’이나 ‘팔 번’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10회’는 ‘십 회’라고 횡수의 의미로 쉽게 파악되지만, ‘8번’은 ‘팔 번’이라고 읽게 되면 반복적 의미의 횡수가 아닌 ‘일번, 이번, ... 팔 번’의 관계에서 오는 순서로 해석하게 된다. ‘8번’은 ‘여덟 번’으로 읽을 때 횡수를 말하는 원문 내용과 일치하게 된다. ‘회’와 ‘번’은 횡수를 셀 때 쓸 수 있는 수량단위로 한자어 수사로만 결합하여 횡수를 나타내는 ‘회’와 달리 ‘번’은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으며 어떤 수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팔 번’이라고 한자어로 먼저 읽혀지기 쉬운 ‘8번’은 번역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물론 (13a)와 (13b) 두 예문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13a)의 ‘10회’와 연결지어서 ‘8번’을 ‘여덟 번’이라고 횡수의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자어로 일차적으로 읽히는 숫자로 인한 오역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량단위 명사를 ‘회’로 바꿔서 ‘8회’라고 쓰던가, ‘여덟 번’이라고 고유어 수사를 써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13)의 두 예문은 운동 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 텍스트에서 발췌되었으므로 (13b)의 ‘8번’은 (13a)의 ‘10회’와 같이 수량단위 명사 ‘회’와 숫자를 써서 ‘8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 중 어느 것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수량단위 명사 ‘번’, ‘편’, ‘권’은 숫자와 함께 쓰면 번역에서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정보적 텍스트의 번역은 원문의 메시지를 목표 텍스트에서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번’, ‘편’, ‘권’의 수량단위와 함께 숫자를 써서 번역할 때 의미상 중의성을 피하여 기수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한자어로 일차적으로 읽히기 쉬운 숫자의 사용을 피하거나 숫자를 그대로 쓰되 맥락 내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필요한 어휘를 첨가해 주는 것이 적절한 번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수사 체계는 한자어와 고유어 두 유형의 어휘로 나

누어지고 수량단위 명사에 따라 수사가 결정된다. 어떤 수량단위 명사를 쓰느냐에 따라 수사를 한 가지만 쓰기도 하고 두 가지를 모두 쓰기도 한다. 영한 수량 표현 번역시 수량단위 명사와 어울리는 수사를 써야하는데, 수사를 고유어나 한자어 그대로 쓰지 않고 숫자로 쓰면 자연스럽게 못한 수량 표현의 번역이 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의미의 수량 표현을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 두 가지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때 숫자를 이용한 한국어의 수량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가 짝을 이루어 수량을 표현할 수 있는 ‘년/해’, ‘개월/달’, ‘세/살’ 등의 경우, 영어의 한 가지 수량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의 유형이 수량단위와 같은 계열의 수사로만 한정되어 있고 고유어계와 한자어계의 전달하는 느낌이 다르다. 동일한 의미의 두 가지 수량 표현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격식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먼저 구어와 문어의 코퍼스 자료에서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수량 표현의 대략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문어에서는 한자어 수량단위 명사 ‘세’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구어에서는 고유어 수량단위 명사 ‘살’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결합한 수사 유형으로 문어는 숫자를, 구어는 고유어 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격식성에 따른 문어와 구어에서의 수량 표현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번역 텍스트의 수량 표현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어 텍스트 내에서의 격식성에 따라 수량 표현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실제 번역 문제를 살펴 보았다. 한국어의 텍스트 유형별로 코퍼스 자료의 빈도수를 살펴보았을 때, 정보 전달 위주의 문어체의 신문은 한자어 수량단위 명사 ‘세’와 함께 숫자와 결합한 빈도수가 높았으며, 구어체의 소설은 수량단위 ‘살’의 빈도수가 높았으며 수사 또한 고유어로 쓰였다. 신문에서는 고유어 수량단위와도 숫자가 쓰이기도 했는데, 소설 텍스트에서는 숫자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텍스트 유형의 격식성에 따른 수량단위 명사와 수사의 분포는 문어와 구어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격식의 정도에 따라 수량 표현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텍스트 유형간의 격식성에 따른 수량 표현 쓰임의 결과를 영한 번역에 적용했을 때, 고유어 수량단위 ‘살’과 숫자가 쓰였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못했다. 신문에서는 한자어 ‘세’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격식에 맞는 표현인데, 숫자와 ‘살’이 쓰이면 어색하다. 그리고 한국어 소설 텍스트의 코퍼스 결과에서 고유어 수량단위 ‘살’이 숫자와 함께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었듯이 고유어 수사를 숫자로 쓰면 어색한 수량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숫자는 일차적으로 한자어로 읽히는데, 고유어 ‘살’과 어울리는 수사의 유형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숫자를 쓰면 어색한 수량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과 같은 격식 있고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텍스트에서는 한자어 수량단위와 함께 한자어로 읽히는 숫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소설과 같이 독자가 유려하게 읽는 것에 목적이 있는 텍스트에서는 수량단위와 함께 수사를 읽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텍스트 유형별 격식성에 따른 일반적인 수량 표현의 사용 유형을 번역에 반영하고, 또한 각 텍스트 내의 맥락을 고려하여 격식에 맞는 수량 표현을 쓴다면 자연스러운 번역 텍스트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에서 수사를 숫자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수량단위가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와 모두 결합하지만 중의성을 나타낼 때이다. 수량단위 명사 ‘번’, ‘편’, ‘권’은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고유어 수사와 결합할 때는 기수의 의미를, 한자어 수사와 결합할 때는 서수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번’, ‘편’, ‘권’은 숫자와 함께 쓰이면 고유어로 읽느냐 한자어로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다. 독자는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인 명사나 맥락을 통해 숫자를 고유어와 한자어 중 어느 것으로 읽을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번역자는 고유어 수사를 써서 기수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때는 한자어로 읽기 쉬운 숫자 표기를 피하거나 어휘를 첨가해서 독자에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영어와 달리 수량단위 명사가 발달한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수량단위의 명사에 따라 결합 가능한 수사의 유형이 다르고 그 쓰임의 차이는 격식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영한 번역시 텍스트의 격식성에 맞는 수량단위 명사를 선택했다라도 수사를 숫자로 쓰면 수사의 격식성을 반영하지 못한 번역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숫자로 인해 수량 표현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숫자의 표기를 피해서 명료한 번역문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기심 · 고영근 (1985)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답출판사.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국학자료원.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 뿌리깊은 나무.
- 이익섭 (2005)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지룡 (2002) 「현대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배달말』 30: 41-67.
- 채완 (1983)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19-34.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 Mo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Longman.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altion*, London & New York: Prentice Hall.
- <분석자료>
- 공경희 옮김 (1998)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서울: 세종서적. (Albom, Mitch (1997) *Tuesdays with Morrie*, New York: Bantam Doubleday Dell.)
- 권여선 외 (2008) 『제32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서울: (주)문학사상사.
- 두산잡지 편집부 (2005) 『영한대역 리더스다이제스트 75집』, 서울: (주)두산잡지 BU.
- 박현주 옮김 (2006) 『인 콜드 블러드』, 서울: 시공사. (Capote, Truman (2002) *In cold blood*, New York: Random House.)

[Abstract]

A Study on Arabic Numeral Expression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Kwak, Eun-Joo · Kim, Se Jung
(Sejong Univ. · Yongin Univ.)

An arabic number is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for expressing quantity in English and Korean written texts. However,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have quite different numeral systems in spite of using the same arabic numbers. While English has a single system for numeral expressions, Korean has dual systems, i.e. the native Korean numbers and the Sino-Korean numbers. Thus, English has only one way to read arabic numbers, whereas Korean has two ways. Choices between these two kinds of numerals depend on the types of numeral unit nouns, which are needed by nearly all Korean nouns. In Korean arabic numeral expressions, 'arabic number+unit', the arabic number could read in two way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unit word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rabic numbers and numeral unit word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choice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The first important factor is the degree of formality in a text. Arabic numbers and Sino-Korean units are widely used in newspapers, whereas numerals and numeral units tend to be native Korean ones in novels. The second factor to affect the selection of numeral expressions is unit words. Each unit word has its preferred numeral type, but numbers with a few unit words are read in either way depending on their meanings.

The typical usage of arabic numeral expressions is found in both Korean and English. However, in Korea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ative Korean and the Sino-Korean numeral systems is quite crucial in meaning. Therefore, in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a translator should choose arabic numeral expressions carefully considering a text type and the choice of unit words.

▶ Key Words: arabic number, formality, numeral unit word, the native Korean number, the Sino-Korean number

곽은주

세종대학교 영문과 교수

ejkwak@sejong.ac.kr

관심분야: 번역학, 의미론

김세정

용인대학교 영어과 강사

sejudy@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0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09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0일